

대중문학 연구의 방법

송 희 복*

차

레

- | | |
|-------------------|-----------------|
| 1. 무엇이, 왜 대중문학인가 | 4. 문화비평으로서의 방법론 |
| 2. 문화운동에 의한 한 방법론 | 5. 성찰과 전망의 분기점 |
| 3. 문화연구를 지향하는 방법론 | |

1. 무엇이, 왜 대중문학인가

문학평론가 오생근(吳生根)이 쓴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1976)에 의하면, 대중문학의 부정적인 측면은 비현실성,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움을 위한 끊임없는 모색, 자기만족과 센티멘탈리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대중문학이 순수문학과 대립되는 통속문학이라는 상투적인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궁극적으로 그것은 진정한 문화적 혁명에 토대가 되는 길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¹⁾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와 같은 주장은 원론적인 시각에서 매우 적절하고도 유효한 발언임에 틀림없다. 오생근이 주장했던 바, 대중문학의 부정적인 측면을,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하려는 능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작가와 독자가 소비의 방향에서

* 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김현·김주연 편, 『문학이란 무엇인가』(문학과지성사, 1976), pp.279~282, 참고.

만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대중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당시 오생근의 경우에 비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몇 년 전에 쓰여진 임성래의 「대중문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1995)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겠다.

- ① 대중문학론은 대중문학이 문학의 일부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발상부터 문제가 된다.
- ② 종래의 시각은 대중문학을 평화의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그것의 본질을 부정적으로 파악된다.
- ③ 대중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대중의 기호를 중시하는 상품으로서의 문학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④ 대중문학은 일종의 백일몽이며 잠정적 꿈을 표명한 문학이다. 그리고 대중문학은 이 같은 독자들의 욕구를 상품화하기 위하여 대중들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강하게 자극하면서 흥미성을 높이는 기법들을 활용하게 되었다.²⁾

오생근이 거부했던 대중문학의 상품성이 오늘날 그 작품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이 문학을 비평하고 연구하는 이들로 하여금 혼란과 고민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과 고민이 잘 반영된 것이 최근의 지상(紙上)을 통해 벌어진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학 엘리트주의의 중심에 서 있는 비평가 정과리와, 포스트모더니즘과 생태주의 문학이론에 밝은 영문학자 김옥동의 대중문학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정과리는 문학이 삶의 근본에 대한 반성임에도 불구하고 잘 팔려고만 하니 재미만 추구하고 고뇌하는 면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저간에 대중적인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는 혼성모방이나 통신문학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문학의 위기, 문학의 죽음을 암시적으로 예견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반해, 김옥동은 문학이 위태롭다면 그것은 억압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고급문학의 보편주의에 원인이 있음을 밝히면서, 혼성모방이 기

2) 김종현 외, 『대중문학의 이해』(청예원, 1999), pp.7~20, 참고.

존문학을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설득력이 있으며 통신문학의 수준은 아직 낮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는 대중문학이 담보하고 있는 현실 도피적인 쾌락이 가혹한 현실에서 문학이 맡을 수 있는 기능이며 또한 그것이 관조와 성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문학은 대중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다시 각광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³⁾

요컨대, 두 사람간의 쟁점은 우리 시대의 문학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작품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시대적인 전환기에 있어서 새로운 유통구조로서의 상품성이 갖는 대중적인 영향력을 결코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동시대의 대중문학이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저간의 엄연한 실정이다. 따라서 흥미롭고 첨예한 정과립/김옥동의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중문학이 비평의 대상이 되고 연구의 과제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불가피한 시대의 추세이다.

이 대목에서 필자가 부연하고 싶은 사실은, 이러한 유의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되면 될수록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중문학의 실상이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성찰이나 비판의 문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문학이 대형화된 문화 시장에 편입되어 가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드넓은 입지와 드센 위력을 반증하기라도 한다는 점에서다. 우리는 이 사실을 현실적으로 쉽사리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2. 문화운동에 의한 한 방법론

대중문학을 보는 시각을 문화운동에 의한 한 방법론으로 간주하면서 확대하려는 경우는 우선 문화는 운동의 종속 개념으로 보는 입장을 전제하로 한다.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운동이란 한 사회가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집단적이고 지속적이며 계획적인 움직임이라고 하겠다. 문화

3) 중앙일보, 1999, 5. 25, 참고.

운동은 문화보다는 운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운동보다 문화를 강조하는 문화주의와의 차별성을 스스로 드러낸다. 그것은 한편으로 사이비 고급문화에 저항하고 또 한편으로 현실 변혁의 이데올로기를 수행한다. 문화운동의 실천은 부분 운동의 특수성을 견지하면서 해결해야 할 전체운동에서 주어진 과제를 향해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대중문학을 문화운동에 의한 한 방법론으로 볼 때 우리에게 낯익은 것은 80년대의 민중문학이다. 민중문학에 있어서의 대중성을 강조한 경우는, 돌스토이가, 19세기말 소수 부르주아의 퇴폐성에 탐닉한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이 매춘화(賣春化)의 오염된 타류 속에 빠지게 되었음을 비판하면서, 민중주의의 입장에 서서 만민에게 공통되는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의 건강성과 정도(正道)를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다. 80년대의 민중문학에 이르러서는 서정시와 소설이 서구 시민계급의 미학적 한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것은 장르 확산과 다른 매체와의 연계성에 큰 기대를 걸게 되었다. 대중성 확보의 문제도 이 문제와 분리될 수 없었다. 이재현의 글 「민중문학운동의 과제」(1985)에서도 장르 확산과 타 매체와의 상호 연대성이 강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서구 자본주의 이행기에 있어서 구중산층인 시민계급의 활기와 관련된 소설의 발상 및 발전과 우리 사회구성체 내부에서 현상유지의 큰 안전판인 신중산층의 무기력함과 관련된 소설의 부진은 능히 비교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시의 경우 장시, 담시 등을 통한 서사성·구비성의 획득 시도, 노래·민요·판소리를 통한 음악성·연행성의 획득 시도, 시낭송·시극·시놀이론 통한 유희성·제의성·연행성의 획득 시도, 소설에 있어서 서사성·사실성의 회복이라든가 이야기 구조를 향한 탄력적 대응의 시도 — 이 모든 것을 문학이 다른 예술을 돕고 접촉하면서 거둔, 앞으로 기대되는 성과인 것이다.⁴⁾

80년대의 문화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대중주의(민중주의) 문학운동이 전체적인 문화운동의 유기적인 부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로포·수기·일기·전기(傳記) 등에 이르기까지 문학의 장르가 확산되고 또 이것이 음악과 전통연희와 같이 문화형태와의 상호 연계성을 도모한 것에 어느 정도의 의미

4) 정이담 외, 『문화운동론』(도서출판 공동체, 1985), pp.188~189.

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 여기에서의 대중의 개념이 노동자와 농민이란 계급적인 범주 속에 국한된다는 게 80년대 민중문학운동이 지닌 분명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80년대의 소설의 부진이 갖는 원인을 민중문학운동가들이 계급적인 미학의 기반에서 본 것이 잘못이었다. 90년대의 작가들이 독서 확산의 현상을 주도한 것도 신중산층·여성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김진명·이인화·이우혁 등으로 이어진 대중소설이 복고풍의 국수적(國粹的), 파시스트적인 음습한 관념으로 회귀해도 대중들은 이러한 성향을 열렬히 환영했다. 90년대에 인기 여성 작가층의 두드러진 약진도 팔목할 만한 것이다. 양귀자·공지영·신경숙·은희경 등의 여성작가들이 신비주의와 후일담과 사적 넋두리에 빠져들어도 책은 불티나게 팔리고는 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해도 80년대와 문화운동으로서의 대중문학은 대중성 확보에 실패했음이 자명하다. 대중성의 개념을 사회구성체 이론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문화운동의 개념은 대중문학 연구의 한 방법으로서 일단 유효성을 지닌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하위문화(sub-culture)도 일종의 문화운동의 맥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운동은 일종의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이끌어 가거나 관여하는 입장에서 대중문학이나 대중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분석하고 재해석하고 연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염두에 둘 때, 운동의 개념은 실천 그 자체인 동시에 연구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신세대 문학, 생태주의 문학, 페미니즘 문학, 성적 소수자에 의한 동성애 문학 등이 그러한 성격을 지향하고 있는 사례들이라고 하겠다.

70년대의 오생근이 대중문학에 관한 견해를 밝힐 때만 해도 문학은 상층문화였다. 그는 하위문화를 대중문화로 간주하면서 대중문학은 하위문화로서의 대중문화의 범주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순문학·본격문학은 명백하게도 상층문화에 속하는 것이다.

상층문화란 부유한 특권층이 누리는 사치스런 문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수준의 높이에서 형성되는 승화(昇華 : sublimation)의 문화를

의미한다.⁵⁾

승화란 정신의 고양을 뜻한다. 집중적인 정신의 상태, 즉 ‘서블리미티(sublimity)’는 숭고성·장엄·고상·극치 등으로 번역되는 말이다. 로마 시대의 롱기누스(Longinus)가 ‘위대한 영혼의 메아리’로서의 숭고성을, 문학의 특성 내지 예술의 본질로 규정한 이래, 문학 및 예술이 인간에게 감정의 고양, 영혼의 고양, 강렬하고 인상적인 정신 집중의 고도 등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여겨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상층문화와 하층문화에서의 상하(上下)의 개념은 가치의 질의 문제로 파악될 수 없다. 더욱이, 취향에 있어서의 고급(highbrow)과 저급(lowbrow)으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하위문화는 주류문화로부터 주변화된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상층문화와 달리 가변적이고 생성적이고 탄력적이다. 사회적인 비판의식과 미학적 초월성을 지니면서 사회적인 특권과 우위를 상대적으로 향유해 왔던 엘리트 문화가 점차 대중문화의 거대한 시장경제의 질서 속에 흡수되어 가는 시대임에라! 따라서 문학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다.

하위문화는 60년대 미국의 반문화적인 청년문화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랩과 힙합, 브레이크 댄스, 낙서족, 흑인 할렘 문화, 퀴어(Queer), 옐로 저널리즘 등 여러 소수문화의 형태로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들의 하위문화를 보는 시각의 다양성이 오늘날 대중문화의 현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하나의 접근방식일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위문화가 계급적·성적·인종적 편견에 맞서는 대안문화로 임지를 마련하기 위해선 자기 정체성과 의식의 지향성과 사회적인 구조의 맥락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 중시되어야 할 것 있다면 그것은 ‘세대의식’이다. 세대의식은 하위문화 내지 대중문화를 담론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문제의식의 하나이다. 덕 헨디지의 「하위문화 : 스타일의 의미」를 번역한 이 동연이 「역사서문」(1998)에서 “우리의 달라진 문화환경의 큰 축차지하는 세대문화를 좀 더 생산적으로 독해해낼 수 있는 지점들이 발견될 수 있으리라

5) 김현·김주연 편, 앞의 책, p.277.

생각한다.”라는 말을 주의 깊고 섬세하게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스타일도 하나의 저항의 방식이 된다는 점. 아니 스타일을 통한 세대적 저항이야말로 계급과 성과 섹슈얼리티와 세대적 모순이 뒤얹혀 있는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탈주하려는 데 솔직한 육체적 자기발견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것을 담론화하는 것이다.⁶⁾

90년대의 신세대가 출현하기 전에 선행했던 모드족·히피족·펑크족이란 신세대가 제 나름의 청년문화를 생성하는 데 기여했듯이, 그들이 오늘날 문화형성의 새로운 동인(動因)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신세대의 일탈과 비행(非行)을 제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문화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부도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작가 어빈 웰시의 세대문제를 다룬 작품인 「트레인스포팅」과 「케미컬 제너레이션」—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두고 세칭 ‘중독세대’라고 일컫는다 — 은 영화화되어 유명해진 경우인데, 여기에서의 젊은이들의 일탈과 비행 속에서도 숨을 막히게 하는 억압적인 사회에 대한 가시 돌친 비판의식이 배여 있다.

우리의 경우에 90년대 말의 가장 문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나쁜 영화」와 「노랑머리」도 하위문화가 함유하는 명백한 성격을 띠고 있다. 「나쁜 영화」는 가솔 청소년들이 본드를 흡입한 후 그룹섹스를 벌이고 윤간을 저지르는 내용의 영화이며, 「노랑머리」는 두 명의 애젊은 여성이 한 남자와 소위 ‘트리플 섹스’를 일삼는다는 내용의 영화이다. 하지만, 이 두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어 있는바, 신세대의 방황과 정신적 동요를 한국적 상황에 대입한 것. 특히 후자는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서 수 차례 등급 보류의 판정을 내렸음에도 시사계에 참가한 젊은 비평가들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젊은이들의 전도된 가치체계를 충격으로 그려낸 문제작’이니 ‘우리 시대의 도덕관념과 엄숙주의를 비웃는 과격적인 연출력’이니 하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하위문화가 가치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듯이 대중문학도 이제 예술적인 가치의 잣대로써 재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다. 우리

6) 덕 헵지, 이동연 역, 『하위문화 : 스타일의 의미』(현실문화연구, 1998), p. 9.

사회에도 외래적인 또한 자생적인 하위문화적인 요인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우에는 하위문화가 운동의 수준이 아닌 분산적인 동향(動向)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제 우리의 대중문학도 새로운 문화운동의 한 갈래로 이해하고 인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중문학 연구의 방법의 한 단초도 여기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다.

3. 문화연구를 지향하는 방법론

대중문학 특히 대중소설을 연구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이른바 미디어학으로서의 구성주의적 문예학과, 소위 ‘문화연구’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매체화된 사회에서의 문학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전자에 관해서, 필자는 과문한 탓에, 별로 아는바가 없다. 하지만, 문화연구는 최근에 우리 학계와 평단에서 비상한—아니,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하나의 쟁점으로서 대립양상을 띠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 우선 문화연구의 의미와 그 내력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화연구는 1950년대 후반에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고급문화의 배타적인 전유(專有) 방식에 반기를 드는 데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 출발점의 정치적 배경은 영국의 중도좌파와 대중문화가 손을 맞잡음으로써 형성된 것에 있었다. 모든 대중문화가 이데올로기적이고 저급한 것이라고 경멸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입장이 문화연구를 의식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화를 정신의 높이와 사상의 깊이를 반영한 고급스런 산물의 정화(精華)로 간주해 왔고 또 아직껏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의 태후에는 대중 소비자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평가절하하는 엘리트 의식이나 편견이 감추어져 있다. 이 허점을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정확하게 읽어냈던 것이다. 안토니 이스트호프는 『문학에서 문화연구로(Literary into Cultural studies : 1991)』라는 저서에서

문학이 영국의 지배계급인 귀족의 문화를 표현한 것이라면 대중문화는 노동계급의 표현으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의 전체적인 삶의 양식으로 규정되는 문화에 대한 논의로부터 배제되어선 아니 된다.⁷⁾

라는 윌리엄스의 입장을 ‘문화주의’라고 명명하였다. 문화연구의 성격은 문화주의를 지향한다. 문화주의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해체된 조건에서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각별한 현실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증대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그것은 기존의 문학주의에 대한 반담론(反談論)의 의의를 지닌 것이라고 하겠다.

문화연구에 참획한 일련의 지식인들은 종래의 문학연구를 문화연구의 장(場)으로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특히 이스트호프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이분화된 허구적인 논리를 재생산하는 문학연구로부터 탈피하여 문학에 대한 문화연구의 새로운 발상전환을 목청껏 제안하고 촉구한다. 종래의 문학연구가 모더니즘 읽기라면 문화연구는 수정된 모더니즘 읽기라고 할 수 있다. 문화연구가 롤랑 바르트 유의 이미지론, 데리다적인 해체주의, 포스트모던한 세계인식의 틀 등을 끌어들이었던 것도 이와 관련성을 가진다. 그 동안 소위 ‘문화연구’와는 추리소설, SF, 공포소설, 서부소설, 팬티지, 스릴러, 로맨스 등의 하위 장르를 거느리고 있는 대중소설을 주요한 텍스트로 삼았고, 그리고 김성곤의 『영화와 문학적 상상력』(1997)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거니와, 영화 텍스트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영화가 젊은 세대의 생활방식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과 모더니스트들이 작가를 신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영화가 작가의 권능을 초월하는 종합예술이라는 점과, 영화가 당대의 문화와 사회상을 표출하는 텍스트라는 점으로 인해, ‘문학연구’와는 영화를 문학 텍스트의 열림과 확장으로 여겼던 것이다.

영국의 문화연구가 미국으로 굴절되면서 커뮤니케이션 이론과의 접목을 이룩해 미국 특유의 ‘미디어 문화연구’로 변형·발전되어갔다. L. 그로스버그, D. 켈너와 같은 이들은 영화 텍스트 등을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와 저항담론

7) 안토니 이스트호프, 임상훈 역, 『문학에서 문화연구로』(현대미학사, 1996), p.95, 번역 참고.

의 긴장된 사이에 개입된 상업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성찰해 내었다.

물론 문화연구 방법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문학연구’파의 논리에 대해 적의의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신광현의 「문화연구론의 이론적 입지와 문학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1997)와 김만수의 「대중문화와 문학교육」(1998)은 문학 자체를 매도하고 문학연구를 부정하는 문화연구파의 열풍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보낸 글이다. 신광현은, 이스트호프가 문학을 문학연구로 환원하고, 문학연구를 다시 특정한 연구 경향으로 환원한 후에, 이 경향을 비판하고 매도하면서 문학연구 전체와 문학 자체를 처리해 버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적시해 내고 있다.⁸⁾

특히, 시인이며 문학 교수인 한영옥은 최근 「문화주의에 입각한 ‘시담론’의 문제성」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문화주의에 근거한 시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시는 문화 층위의 상위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왜 우리 시단은 문화적 맥락이 가시화된 시들만을 읽을거리로 삼는가’라는 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를 허문다는 논리는 대중문화를 제빨리 시 텍스트로 바꾸는 순발력 있는 이들을 정예의 시인으로 만드는, 오히려 삶을 응축하여 승화시키려는 시인을 빗길 없는 대중으로 몰아가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⁹⁾

한영옥은 요컨대, 시가 문화담론에 근거할 때 시의 심미적 가치는 소외된 채로 구성되곤 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신광현·김만수·한영옥의, 문화연구 내지 문화주의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외국 문학 전공자들은 문화연구 방법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세 편의 글 — 김성곤의 「미래의 문학연구와 문학교육, 어떻게 변하는가?」(1999)와 김용규의 「문학연구에서 문화연구로」(1999)와 강내희의 「문화 연구

8) 신광현, 「문화연구론의 이론적 입지와 문학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스트호프의 “문학연구에서 문화연구로”를 중심으로」(외국문학 : 1997, 겨울), p.64, 참고.

9) 한영옥, 「문화주의에 입각한 ‘시담론’의 문제성」(현대시 : 1999, 5), p. 25.

의 정치학」(1999)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글이 공동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문화연구의 부분적인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문학 및 대중문학의 연구가 문화연구의 방법론이 남긴 영향권 내에서 장점들을 수렴하여 시대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한, 기대되는 바 생산적인 유효성에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다는 점이다.

김성곤은 문화연구가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가장 최근의 문예사조이며 학문적 경향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궁극적인 한국적인 문화연구의 틀을 창출해낼 수 있다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문학을 세계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연구를 바라보는 시각의 편협성이 극복되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김성곤은 다음과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화연구가 문화 텍스트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삼자, 그 동안 문학이 점유하고 있었던 자리에 갑자기 영화, 만화, 텔레비전, 라디오, 대중가요, 음악, 미술, 사진, 잡지, 신문, 건축, 광고 등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결과 문학은 이제 여러 문화 텍스트 중 하나로 축소되었으며 많은 정보매체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보수주의적 문학자들이 불안과 불만을 느끼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성스러운 정전을 무시하고 대중문학장르가 고개를 들고 끼여든 것도 가뜩이나 불만스러운 상황에서, 이제는 대중매체까지 문학의 자리를 위협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순수문학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문학의 성지를 수호(또는 탈환)하려는 문학적 십자군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¹⁰⁾

이에 비해 김용규는 문화연구의 방법론을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다. 그는 대중문화와 문화주의의 현실적인 위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덕 헵디지의 말처럼 펑크 하위문화가 상품화되어 전세계로 팔려나가는 것을 저항적 하위문화가 전세계 구원의 문화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쯤으로 이해하는 현실이다. 요즈음의 대학에서조차도 경제적인 효율성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볼 때 문화연구가 문학연구를 압도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그러

10) 김성곤, 「미래의 문학연구와 문학교육, 어떻게 변하는가」(21세기문학 : 1999, 봄), pp. 126~127.

나 문화연구는 문화의 대중성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저항의 가능성을 찾는다는 점에서 문학보다 더 비판적인 의미를 갖지만 자본과 문화 산업의 논리에 쉽게 흡수될 수 없다. 이 대목에서 김용규는 문화연구에 대해 비판적인 거리를 분명하게 유지하고 있다.

모든 것을 포섭하는 문화산업의 논리가 기정사실이라면, (...) 여기서 우리는 문학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문학은 문화산업의 논리에 의하여 흡수되는 속도가 더디며, 그러한 논리에 저항해온 긴 역사적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대만을 기억하는 문화연구에 비해 문학연구는 자본주의적 상품화가 낳은 인간소외에 대항하여 인간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으며, 문학연구가 쉽게 문화산업의 논리에 흡수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기억 때문이지 않을까. 삶의 모든 곳에 침투한 자본의 논리에 맞서고 미래에 도달한 인간의 삶을 구상하며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문학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¹¹⁾

문화연구는 현실적인 위력을 지니고 있지만 가치의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비해, 자본과 문화산업의 논리에 쉽게 흡수되지 않는 문학연구는 이것이 지닌 바 가치지향성 때문에 이것의 독자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문학연구의 새로운 필요성과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 문화연구와 손을 잡으면서 그 어깨를 짚고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김용규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점이지 아닐까? 그렇다면, 그의 관점과 방향성과 글 제목은 ‘문학연구에서 문화연구로’가 아니라 ‘문화연구에서 문학연구로’가 되는 셈이다.

강대회는 문화연구를 정치적인 실천으로써 수행하는 입장에서 분과적 지식 생산을 비판하는 문화연구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한국적인 상황에 정착하여 자기 비판의 과제에 맞설 때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가리켜 문화연구의 정치학이라고 이름하고 있다.

문화연구는 비판적이다. 하지만 문화연구 자신의 비판도 필요하다. 문화

11) 김용규, 『문학연구에서 문화연구로』(오늘의 문예비평 : 1999, 봄), p. 124.

고 한 것은 그러한 관계를 잘 설명한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신라 말에 대두하여 고려 시대에 성행하게 된 선종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김두진이,

문벌귀족사회가 동요되는 고려 중기에 거사불교가 나타나 선 수행을 병행하는 사상경향을 띠어 갔는데, 한편으로는 선종사상이 서서히 퍼져가고 있었다. 특히 예종대에는 선종 승려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해졌다. 그 이유는 우선 예종이 선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 慧照 등 선종 승려를 지원하거나 선종 사찰인 安和寺 등을 중수하였으며, 선종 사원으로 자주 행차하였음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종이 이자겸 일파를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원하였던 韓安仁·尹彦頤 등 신진세력은 선종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¹⁹⁾

라고 하였듯이 고려 중기 이후에는 선종이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선종은 향가의 쇠퇴와도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밀교를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口密, 意密, 身密이 있다. 그런데 신라시대는 신인종, 총지종과 같은 밀교계 종파가 두각을 크게 나타낼 수 없었는데 이는 당시의 우리 나라 밀교는 종파가 따로 독립되어 형성되었다기보다는 화엄종이나 법상종 등과 같은 여러 종파 속에 밀교적 요소가 각각 강하게 혼재된 양상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때에는 口密이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고, 따라서 밀교 중에서도 口密과 관련이 된 향가가 성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문종 이후 신라말이 되면 선종이 대두하게 되는데, 이 선종은 경주 중심의 불교를 지방으로 확산시켜가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선종은 지방 호족들과 결부되면서 불교의 지역적인 대중화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선종은 또 한편으로는 밀교의 口密 중심에서 참선에 의한 意密, 身密을 강화시켜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넷째, 고려 시대는 각종 밀교의식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되

19) 김두진, 「현종대 이후 화엄종·법상종의 대두와 불교계의 도순」, 『한국사 16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국사편찬위원회, 1994), p.59.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대중문학 연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선 실제 비평의 형태로서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일부 문학비평가들이 90년대의 시의 문화적 체험이 주로 대중문화 또는 대중예술의 체험인 점에 착안하여 문화비평의 성격으로서 분석한 바 있다. 앞으로 문화연구를 지향하는 방법론이 대중문학을 논의할 것 같으면 여러 하위 장르를 거느린 대중소설을 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문화비평으로서의 방법론에 접근하고 있는 바 대중문화에 관련된 비평문은 시에 국한하고 있음이 특징으로 지적된다.

김준오의 「대중문화의 탈승화」(1996)는 90년대의 시가 영화를 비롯해 TV·라디오·신문·비디오·컴퓨터·음반 등의 대중매체와 이 대중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대중예술 작품들에 대한 시인들의 반응을 다양하고 이 반응 자체가 시의 의미구조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박남철·황지우·유하·장정일·함민복 등의 시를 통해 대중문화에 접목한 시의 '탈승화' 현상에 착목하여 '문화시'라는 용어를 조심스레 제안하고 있다. 이론바 탈승화(脫昇華)란, 문학이 정신적인 수준의 높이에서 형성되는 승화의 상충문화를 의미한다고 말한 오생근과, 시를 삶을 응축하여 승화시키는 행위의 소산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영옥의 경우와 배치되는 문학적 인식의 경과로 보여진다. 만약 문화시의 개념이 가능성을 획득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영화시·광고시·키치시·서술시·춤시·사진시 따위의 부수적인 용어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문선영의 「왜 문화비평인가」(1997)는 문화비평적인 시각에서 90년대 시의 대중문화적인 현상을 규명하고 분석한, 매우 의미 있는 논문이다. 이 글을 김준오의 발상을 이어받은 듯한 발전적인 연속선상으로 읽혀질 수 있는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우선 문화비평의 개념, 역사적 흐름, 범주 등으로 이어지는 용어의 세목(細目)을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문화시의 정당한 근거와 존재 의의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자신 있게 표명하기에 이른다. 두 부분을 동시에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문화비평의 입장과 동계에서 행해지는 시쓰기 혹은 시읽기가 문화시

다. 문화시는 문화, 특히 대중문화의 측면들을 포괄적으로 원용한다. 20세기의 지배적 문화 형태가 대중문화이고 문화시 또한 대중문화의 르네상스기와 맞물려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삶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대중문화의 반영으로서 시가 이제 그 존재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대중문화를 소재 혹은 제재로 삼을 시가 곧바로 문화시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시는 문화적 현실의 반영을 넘어 '재현된' 문화적 현실의 양태들을 시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¹³⁾

- ② 패러디로써 문화를 재구성하는 시를 문화시라고 명명했다. 삶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의 반영으로서 시를 문화시라고 이름붙였다. (...) 물론 문화의 다양한 개념 속에서 그 논란의 여지는 있겠으나, 어쨌든 패러디를 주된 무기로 삼아 20세기의 지배적 문화형태인 대중문화를 시로 읽어내려는 문화시는 문화비평의 맥락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양태임에 틀림없다.¹⁴⁾

보다시피, 문화시가 전략과 수사학의 중심에 놓이는 것은 패러디이다. 이것은 김준오가 제기한 '탈승화' 개념을 좀더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간주해도 좋다. 문화시가 대중의 저급한 형식으로 폄하되는 것은 문화 엘리트즘의 소산이며 계급적 편견의 결과이다. 이러한 징후와 맥락을 간파하고 있는 문선영의 시각이 하나의 탈중심적인 문화비평의 주체적 성격을 갖기 위해선 이상과 같이 설득력 있는 담론 형식이 필요했을 것이다.

송희복의 「90년대 시와 대중문화의 교섭」(1997)에서는 90년대의 시 경향이 문화적 상황에 반응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문화시가 움직일 수 없는 가치 개념이 되어선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중문화가 시에 미치는 악영향 내지 부정적 현상을 사장한 채 시의 대중문화에서의 정서를 옹호하는 이론만으로 그것이 오해되고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시를 고정된 개념의 틀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하나의 가설로서, 가변적으로 생성하는 현상으로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미 문젯거리가 아니다. 송희복은 특히 여성의 몸이 정치적인 권력관계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90년대 시의 섹슈얼리티와 상업주의에 관대하지 못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모든 성담

13) 문선영, 「왜 문화비평인가」(문학지평 : 1997, 여름), pp. 57~58.

14) 같은 책, pp. 76~77.

론(性談論)에는 인격과 인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남근주의적인 발상의 성의 상품화는 여성성 및 여성의 인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인간(여성)과 더불어 섹스를 나눌 수 있는 컴퓨터를 두고 매우 인간적이라고 한 내용의 최영미의 「Personal computer」를 비판하고 있다. 요컨대, 그는 90년대에 있어서의 시와 대중문화의 교섭양상을 두고 다음 세 가지의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 ① 시가 문화적 상황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 ② 오늘날 문화적 상황에서 인간 이성의 신뢰를 확인시켜주는 언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 ③ 대중문화의 현실에 접근하는 오늘날의 시는 일? 정서의 절제를 보여 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¹⁵⁾

이러한 시각은 중도적 — 생각하기에 따라서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 이다. 어쨌거나 대중문화는 우리의 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문학과 예술의 굳건한 성체(城砦)와 학문의 고고한 상아탑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한 한 반응으로서의 문화비평이 대중문학 연구의 방법론으로 기대고 있다는 현상조차 자연스럽게 인지되는 것은 이제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부연하자면, 개간 『시와 사상』(1988 : 봄)에 ‘대중문화 비평’이란 기획특집을 마련한 바 있었다. 여기에 발표된 허혜정의 「시와 포르노그래피, 팬시 호텔로 가다」와 김애주의 「랩의 감수성과 시장 원리」는 시의 문화적 현상을 문화비평의 입장에서 분석한 흥미로운 비평적 읽을거리이다. 시와 포르노그래피, 시와 대중음악에 관한 간(間)텍스트성의 시도 자체만으로 의미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5. 성찰과 전망의 분기점

이제 문화는 분과적인 질서와 전문성을 해체하거나 국경을 초월해서 범람

15) 송희복, 『시학입문』(한국문연, 1998), pp. 223~225.

하고 있다. 어느새, 이른바 ‘클로스 오버’나 ‘스펠 오버’나 하는 용어조차 진부해졌다. 포르노그래피에도 텍스트가 존재하게 되고, 은밀한 사생활이 문화 담론의 화두로 간혹 등장하기도 한다. 장르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문화 게릴라’의 활동, 동호인이나 ‘광들(maniac)’로 조직된 소집단의 움직임 — 이윽크, 이창동, 이만영노, 노철사, 연희단 거리패, 붉은 악마, 문화학교 서울 등등은 이미 주류문화에 편입했거나 주변문화에서 주류문화로 편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의 분출 자체가 하나의 문화 현상이다. 얼마 전에 출범한 영상문화학회는 간(間)분과적인 통합 학문을 지향하면서 학문간의 경계를 소멸하려고 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갓 출범한 영상문화학회는 문명사적인 변동의 전환기라는 시대사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영상 이미지를 중심축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인문학 · 예술 · 과학의 전통적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연구를 위한 통합 학문적인 학제간(學制間) 연구방법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문자와 영상 이미지의 장단점을 서로 보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제 절실하고 절박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추세에 대해 다소간의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백안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인문학계를 대표한 김우창이 최근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문학이 새 문명의 화두 격인 영상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고 있다.

영상은 중요한 발전이고 해방구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학교육에 영상이 언어를 압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통은 마땅히 논리적 ·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합리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언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반면 영상은 이미지를 통해 소통하기 때문에 언어가 가지는 합리적 소통을 마비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이 갖는 단기 · 즉흥적 지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작가와 시인이 마치 연예인처럼 자신의 책 광고에 등장하는 것도 영상적인 것의 후유증입니다. 인문적 교양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나와야 하는 것도 물론입니다.¹⁶⁾

16) 중앙일보, 1999, 6. 28.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대중문화는 상당한 힘이 실려 있다. 정치적인 다수의 힘이 경제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으로 전이되면서 문화산업이 발흥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과정이다. 수용자들의 기호에 따라 클래식 예술이 몸 바꾸기를 시도하고, 교육에서도 학습자의 개념이 수요자의 개념으로 대체된다. 종래의 지식인도 지식인 본연의 이성과 원리를 유보하면서까지 지식생산의 유효성을 중시하는 신지식인에 의해 입지를 상실해가고 있다. 모든 것이 무한 경쟁의 조건에서 시장 경제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원칙의 앞자리에 80년대에 정치적인 힘을 발휘했던 대처리즘과 레이저노믹스가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오늘날의 시대상황은 영미식 사고에 의거한 문화의 패권주의가 세계 질서를 재편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구권 몰락 이후 진리의 절대성을 강조한 이데올로기가 후퇴한 자리를, 탄력적이고 상대적인 이론이나 주장에 관한 기초의 집합으로서의 '담론(discourse)'이 차지하고 있다. 담론은 생산적이라기보다 생성적이다. 이제 대중문화는 현상인 동시에 담론의 대상이 되었다.

한 세기에 걸쳐 지식인 문학의 증언이 수없이 예견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은, 지금 현재, 어쩌면 앞으로 대중문학 못지 않게 지식인 문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상의 「날개」와 최인훈의 「광장」과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등과 같은 지식인 소설이 꾸준히 읽히고 있다. 특히 「광장」은 백쇄를 돌파했다. 이러한 경우를 볼 때, 문학의 현상화는 다만 작품을 생산하는 입장이 중시된 언저리에 이를 상품으로 소비하겠다는 입장이 조금씩 장식해 들어가고 있을 따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보는 종래의 시각에 대한 수정주의적인 변화가 큰 물결을 타게 될 것이다. 이성주의에 입각한 모더니즘 문학의 입장에서 볼 때, 문학은 기존의 완결된 세계를 지향하는 것의 소산이다. 불순물로 온전히 제거되고 형식적인 구도도 완미한 '잘 빚어진 항아리' — 그러나, 이제는 착잡한 문화 현상 속에서 문학의 정체성을 담보해주는 용기(容器)가 이미 아니다.

전통의 힘을 배경으로 한 정전(正典)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이탈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선 급속도로 이탈해버릴지도 모를 문학의 대중성 문제는 그야

말로 문제적이다. 다음 연대에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문학운동이 필연적으로, 대단히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문학연구의 분야에서도 움베르트 에코의 ‘열린 텍스트’의 개념과 피에르 부르디외의 문화의 장(場)을 서게 하는 요인으로서의 아비투스(habitus) 이론이나 문화재생 등등이 당장에 적용되는 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대중문학 내지 문학의 대중성이 문제적인 담론으로 활발히 제기되는 것과 함께, 대중문학 연구의 분야 폭넓게 조성될 것이다. 그러할 때, 담론의 주체성이 쟁점으로 반드시 부각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곧 목전에 닥치게 된다면, 예컨대, 정재서의 「대중문학의 전통적 동기」(1995)와 같은 글은 우리에게 각별한 소중하게 기억될 것이다. 대중문학을 인식하는 지적 패러다임이 서구중심주의에 추수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화 식민주의에 예속되는 경우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다. 오죽하면 컴퓨터 통신문학이란 하위문화를 보는 데도 우리의 자생적인 이론의 창출이 아쉬운 시대가 올 수도 있음에랴. 엄연한 사실이 있다.

대중문화라는 같은 용어로 번역되어도 ‘포퓰러 컬처(popular culture)’가 지향하는 애호가적 현장성이 ‘매스 컬처(mass culture)’의 대량 생산 및 유통의 구조를 가진 거대 시장의 논리에 의해 와해되어 가는 이 시대에 저자(author)는 권위(authority)의 상징이 더 이상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저자의 죽음과 권위의 상실은 종래의 작가적 위치를 신역(神域)으로부터 한없이 멀리 추락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제 문학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다만, 우리는 작가가 각별한 감정의 세계와 호기심을 자극할 때 독자는 어떠한 반향과 공명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일련의 과정, 즉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중시하여 이를 해석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학의 대중화는 이제 문학성의 잣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을 거부한다.

참 고 문 헌

- 김현·김주연 편, 『문학이란 무엇인가』(문학과 지성사, 1976)
- 김중현 외, 『대중문학의 이해』(청예원, 1999)
- 정이담 외, 『문화운동론』(도서출판 공동체, 1985)
- 정재서, 『동양적인 것의 슬픔』(살림, 1997)
- 송희복, 『시학입문』(한국문연, 1998)
- 김성곤, 「미래의 문학연구와 문학교육, 어떻게 변하는가」, 『21세기문학』 1999 봄호.
- 김용규, 「문학연구에서 문화연구로」, 『오늘의 문예비평』 1999 봄호.
- 강대희, 「문화연구의 정치학」, 『비평』 1999 상반기.
- 한영옥, 「문화주의에 입각한 ‘시 담론’의 문제성」, 『현대시』 1999.5.
- 문선영, 「왜 문화비평인가」, 『문학지평』 1997 여름호.
- 김창식, 「문화연구와 대중문학」, 『한국문학논총』 23집(한국문학회, 1998)
- Angela mcrobbie, Post-modernism and Popular culture, TJ Press Ltd, Padstow Cornwall, 1994.
- 딕 헵디지, 이동연 역, 『하위문화 : 스타일의 의미』, 현실문화연구, 1994.
- 안토니 이스트호프, 임상훈 역,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현대미학사, 1996.
- 존 스토리, 박모 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연구, 1994.
- 크리스 젠크스, 김윤용 역, 『문화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1991.
- 오르테가 이 가세트, 사회사상연구회 역, 『대중의 반역』, 한마음사, 1989.
- 앤드류 밀러, 이승렬 역, 『우리 시대의 문화이론』, 한뜻, 1996.
- 중앙일보, 1999.5.25일자 : 6.28일자.

Abstract

Approaches to the Study of Popular Literature

Song Hui-Bok

The value of popular literature today is determined not by whether it has artistic beauty, but by how well it is sold. Recently in Korean, there have been controversial arguments among critics between the literature elitism and post-modernism. The literature in the turning point cannot be free from the influences from the public.

Cultural movement is generally seen as a way of studying popular literature. Cultural movement is related to the concept of practice, the revolution of reality, problem-solving strategy, ideology. Sub-culture, which is prevalent worldwide, has an effect on cultural movement. In Korea, sub-culture is not considered as a movement yet, but as a dispersive trend.

Cultural studies in the study of popular literature established their base early. It is predicted that the studies on Korean popular literature will be done in the near future by applying it to the theory of cultural studies. So Korean critics are required to develop a future-oriented theoretical model.

The term "cultural criticism" is a polysemous terminology. It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interaction between literary text and mass culture. Nowadays in Korea, it takes the form of real criticism. Critics in the future are expected to narrow down their attention to popular poems and novels and the non-traditional genre of literature deviated from the canon.

Popular literature or the popularity of literature will be raised as a problematic discourse. Furthermore the study on popular literature is expected to flourish. Literature today faces both crisis and opportunity.